



4.27 재보궐 선거와 향후 정국변화 전망

2011년 4월 30일

정한울_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4.27 재보궐 선거 평가와 정국 변화】 MB 정부 중간평가다 65.3%

(1) 4.27 재보궐 선거 평가

- 4.27 선거 의미 :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다” 65.3%
- 2010년 7.28 선거에선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다” 44.8% 불과

(2) 대통령 긍정평가 급락 : 전월 대비 9.5%p↓, 44.6% (3월) → 35.1% (4월)

- 레임덕 현실화되나? 대선지지자 45% 이탈
- TK-50대-보수층에서 지지 이탈 심각

(3) 정당 지지율 박빙 : 한 38.4% vs 민 22.2%(3월) → 한 37.5 vs 민 32.1% (4월)

- 손학규 효과,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 급상승 : 21.9%(3월) → 38.0%, 16.1%p↑

【차기 대선구도와 차기주자 지지율】 박 우세 여전, 추격발판 마련한 손학규

(1) 17대 대선과 18대 대선구도 비교

- 공통점 : “심판론/정권교체론” 공감도 높아, 17대 대선 58.4%, 18대 대선 61.9%
- 차이점 : 반MB 연대 공감도 급증 40.2%→ 57.2% / 17대 野 강세, 18대 與 강세

(2) 차기 대선 지지도 : 박근혜 우세 여전, 손학규 두 자리수 지지율 재진입

- 단순 대선 지지율 : 박 35.8% > 손 11.5% > 유 7.1% > 오 5.1%
- 당선가능성 : 박 48.9%, 손 12.5%, 오세훈 7.5% → 5.3%

(3) 진영별 후보 적합도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7.0% > 오세훈 10.0% > 김문수 9.2% > 정몽준 5.0%
- 야권단일 후보 적합도 : 손학규 41.4% > 유시민 10.4% > 한명숙 8.4% 순

(4) 박근혜 대 손학규 양자 가상대결, 박근혜 52.3% 대 손학규 33.1%

【쟁점】 정권교체론 높는데 박 전대표 우위가 유지되는 이유?

대선은 인물요인 크고, 회고투표보다 전망투표 경향 강해

정권심판/야권통합 공감해도 “인물보고 결정하겠다” 55.4%, 김해을 패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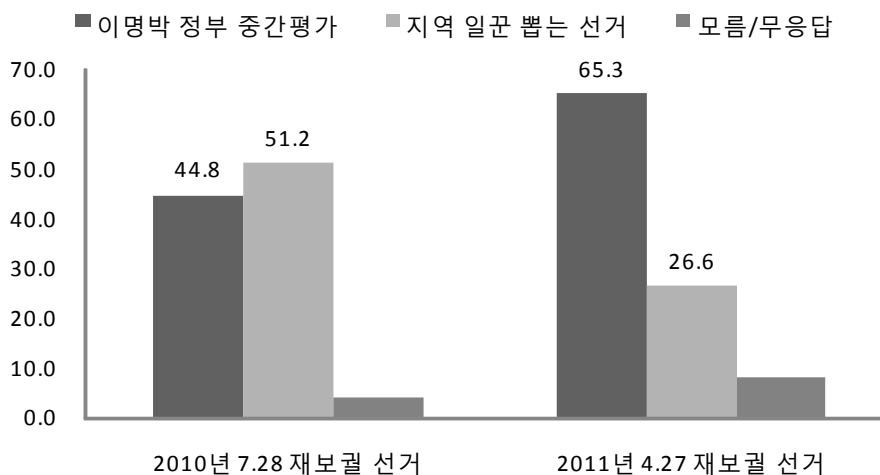
[4.27 재보궐 선거 평가와 정국 변화] MB 정부 중간평가가 65.3%

(1) 4.27 재보궐 선거 평가

4.27 재보궐 선거의 의미 :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다” 65.3% vs “지역 일꾼 뽑는 선거” 26.6%
 한나라당 승리한 2010년 7.28 선거 : “중간평가” 44.8% vs. “지역 일꾼 뽑는 선거” 51.2%

-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4.27 재보궐 선거가 끝이 났다. 보궐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야권에서 이렇다 할 인물과 쟁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졌던 보궐선거는 손학규 대표의 분당 출마를 계기로 급격하게 현 정부 중간평가 및 차기대선 전초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김해을에서 결국 유시민 대표가 미는 이봉수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로 나서면서 야권 주자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의 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선거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경쟁의 구도가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될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선거에 대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국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림 1] 2010년 7.28 재보궐 선거 및 2011년 4.27 재보궐 선거 성격에 대한 평가(%)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2011.4), EAI·한국리서치(2010.7)

- 뿐 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번 재보궐 선거를 지역일꾼을 뽑는 지역선거로 보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YTN·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선거 직후 4월 30일 유선전화 RDD방식으로 진행한 여론바로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3%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라고 답했고 26.6%만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 라고 답했다. 7.28 재보궐 선거에 비교해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 현 정부 들어와 유권자들이 각종 선거에 의미부여하는 패턴을 보면 이전 참여 정부 시기와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중후반기의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일관되게 중간평가론, 정권심판론이 작동한 반면 현 정부에서는 야당의 중간평가론과 여당이 주장하는 지역일꾼론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는 것을 견제하는 균형투표(balancing voting)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¹⁾
- 사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간심판론이 선거 막판에 힘을 받으며 여당의 참패로 끝났지만 불과 한달 만에 실시한 7.28 재보궐만 보더라도 선거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보다 여당이 강조한 “지역일꾼론”에 손을 들어 주었고 실제 선거결과도 한나라당의 승리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2010년 7월 정기조사에서 7.28 재보궐 선거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답한 응답은 44.8%에 그쳤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평가가 51.2%로 과반을 넘었다. 2008년 총선, 2010년 6.2 지방선거, 7.28 재보궐 선거, 2011년 4.27 재보궐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 결과는 특정 진영의 일방적 승리보다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여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 결국 중간평가론이 우세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 여론을 엿볼 수 있는 분당과 두 MBC 사장 출신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강원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그 외에도 단일후보 선정과정에서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내세웠던 김해을 선거에서는 지난 해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 낙마한 김태호 후보가 당선되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호남에서는 역시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후보가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 손학규 대표가 보궐선거의 승자가 된 분당은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후보에게 71%의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줬고 50%를 넘는 한나라당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나라당 아성이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 탄핵으로 위기에 빠졌던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데에는 수도권 30, 40대 및 중산층을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데 성공한 결과이며 분당은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의 승리는 손학규 대표 및 민주당의 중산층/중도층에서의 잠재적 득표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코 앞에 둔 지금 한나라당이 분당의 패배로 인해 받을 충격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상대적 열세로 알려졌던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도 인지도에서 크게 앞선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를 맹추격하여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과열 선거운동엔 우려 : “나 홀로 유세방식 선호” 67.5%”

- 7.28 재보궐 선거와 달리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4.27 재보궐 선거였기에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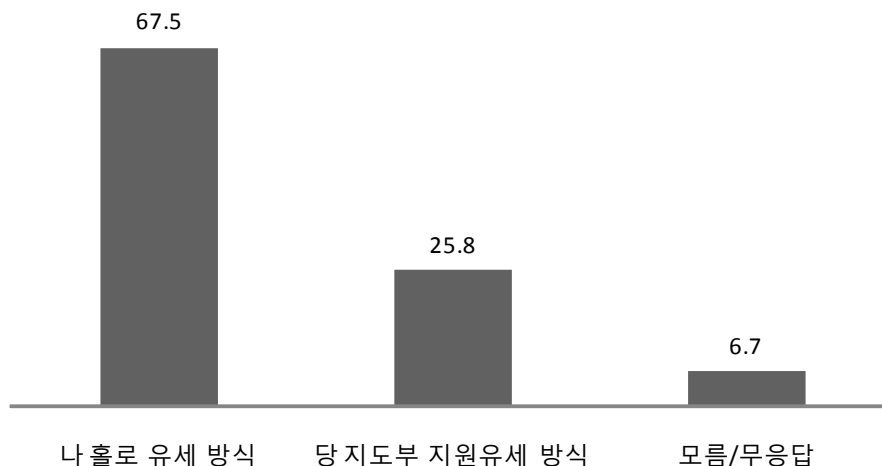
1)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균형투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대영 외. 2010. “지방선거, 중간심판론 바람 불까?” 〈EAI 여론브리핑〉 제79호, 유권자들의 상충적 태도(ambivalent attitude)의 확산과 이에 따른 견제심리 및 균형투표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한울. 2011. “한국사회 이념 트렌드 변동과 정치적 함의” 〈EAI 오피니언리뷰〉 201104-01호. 를 참조할 것.



부 진영을 제외하면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총력전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지역에 각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동원되었지만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분당에서의 손학규 후보나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지정서가 강한 김해읍에서의 김태호 후보는 후보 혼자 유세하는 나홀로 유세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쳤고 실제 선거에서도 상대당의 총력전을 넘어 승리했다.

-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들이 총동원되어 유세하는 방식보다 나홀로식 차분한 선거운동에 대한 높은 호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당 지도부가 지원유세를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5.8%에 불과했던 반면, “후보자 혼자 유세하는 나 홀로 유세방식”에 호감을 표한 응답이 67.5%였다. 이는 세대나 지역,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비슷한 응답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정서가 표몰이식 선거운동 방식으로 인한 과열선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후 각종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캠프에서 눈여겨 볼 대목으로 보인다.

[그림 2] 2011년 4.27 재보궐 선거에서의 선호하는 선거운동 방식(%)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2011.4)

(2) 4.27 이후 정국 변화¹ : 국정긍정평가와 정당 지지

대통령 긍정평가 급락, 지지층의 급격한 이탈 레임덕 가능성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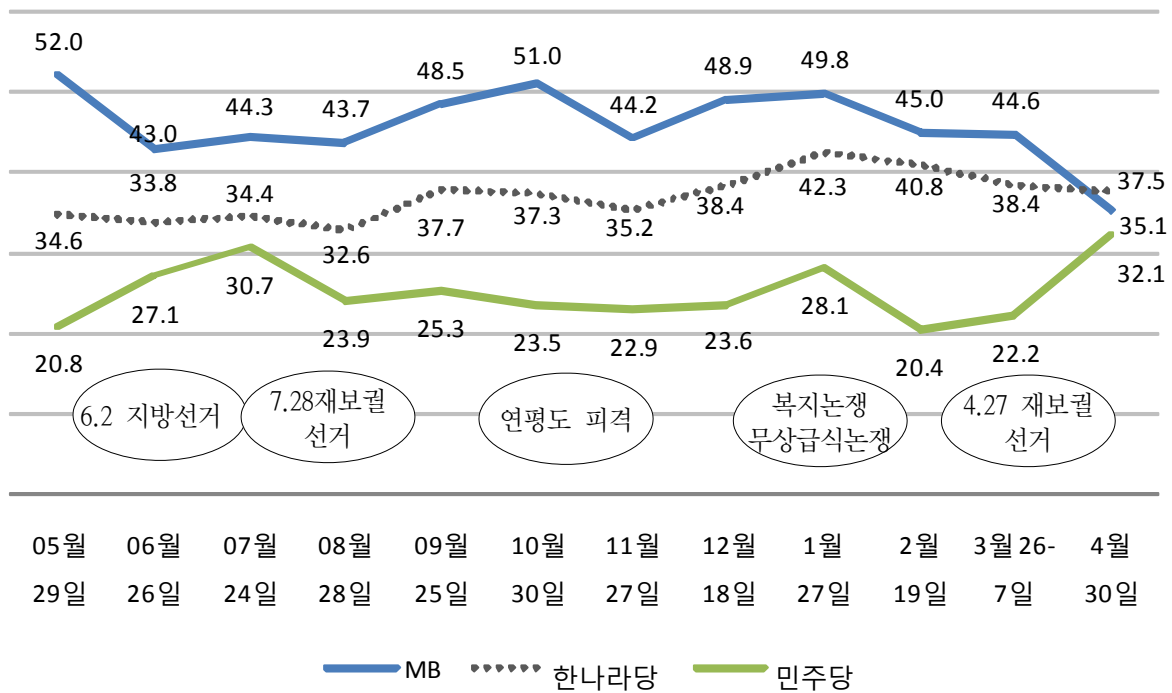
전월 대비 9.5%p↓, 44.6% (3월) → 35.1% (4월)

- 이러한 선거결과는 집권4년차 후반기로 접어드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후반기 전략과 차기 대선을 앞둔 각당, 각 대선주자들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비율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유권자들 다수가 이번 선거를 현

정부의 중간평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패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 올 1월 조사에서 49.8%의 국정 긍정평가를 기록한 이래 미세하나마 하락 추세로 돌아서 3월 조사에서 44.6%였고, 이번 4.2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35.1%로 전월대비 9.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한나라당 지지율 37.5%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서 2009년 본 조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책임을 여당보다 대통령과 정부에 묻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대통령 국정긍정평가 및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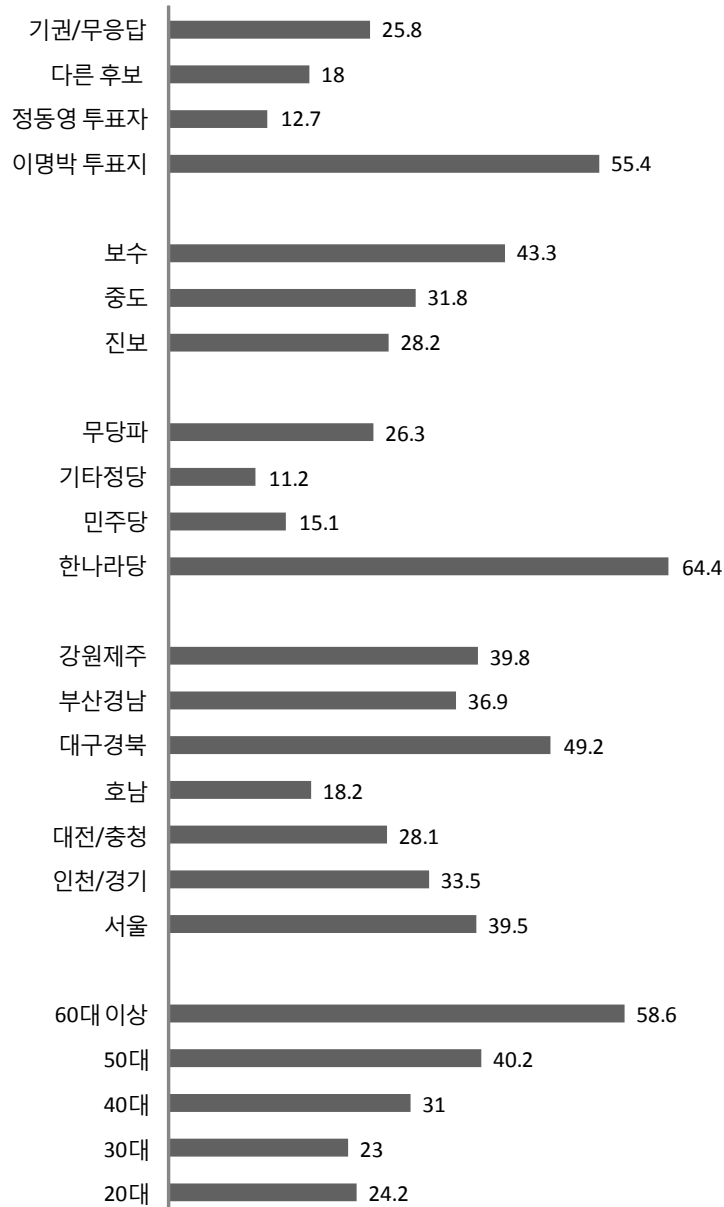
지지층의 급격한 이탈 레임덕 가능성 커져, 2007년 MB 투표자의 10 중 4명 이탈. 영남, 50대,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 과반 못 넘어

- 이러한 국정 긍정평가비율의 급격한 하락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론 등을 이슈화하며 관리해온 국정지지율이 추락할 경우 임기 4년차를 맞이하여 레임덕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선거결과도 결과지만 무엇보다 정부로서는 그 동안 지지기반을 해온 지지층의 이탈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사회계층별/ 정치적 태도별 국정 긍정평가(%)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충청권 등 그 동안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지역들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40%를 밑돌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온 영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40%에도 못 미치는 36.9%였고, 특히 60%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던 TK지역에서조차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비율이 49.3%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58.6%가 여전히 이명



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지난 3월 조사만 하더라도 52.3%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50대에서 이번 조사결과 긍정적 평가비율이 40.2%에 그쳤다.

-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 중 절반을 약간 웃도는 55.4%만이 여전히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지했고, 나머지는 부정적이거나 답변을 유보하는 등 열 명 중 네명 이상이 국정지지층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도 진보층에서 28.2%, 중도층에서 31.8%였고,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과반에 많이 못 미치는 43.3%만이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 우호적으로 답했다. 그나마 한나라당 지지층의 64.4%가 대통령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대통령 지지기반이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축소된 양상이며 이번 선거결과나 최근 대기업과의 마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층에서조차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3) 정당 지지율 박빙 접근 : 한 38.4% vs 민 22.2% (3월) → 한 37.5 vs 민 32.1% (4월)

손학규 효과,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 급상승 : 21.9%(3월) → 38.0%로 16.1% 포인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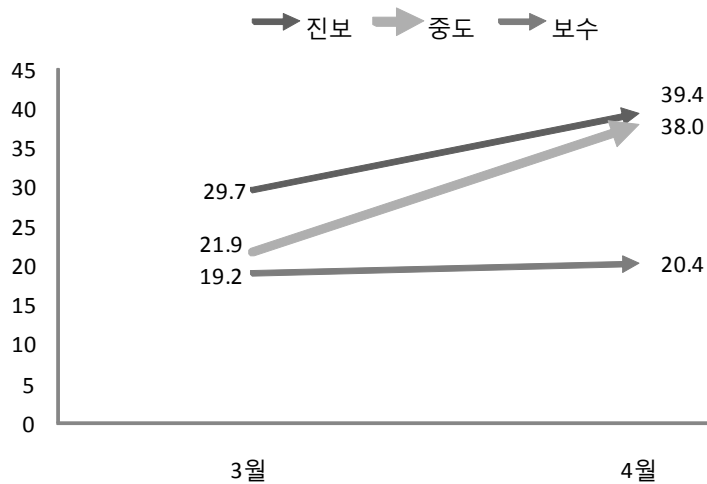
- 4.27 재보궐 선거 이후 향후 정국에 미친 또 다른 충격은 여야간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조사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38.4%, 민주당 지지율이 22.2%였지만 이번 4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은 37.5%로 정체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2.1%로 크게 상승하여 오차범위내로 접근했다.
-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경우 당대표부터 한나라당의 강세 지역인 분당선거에 도전함으로써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순천을에서의 무공천 약속을 지켰다. 특히 김해을에서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참여당과의 갈등을 결국 민주당 광진업 후보가 양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과거의 선거과정에서 이합집산하거나 당파적 이익을 우선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거승리 및 당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손학규 대표가 지난 해 당 지도부 선출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진보노선으로의 급격한 솔림 현상과 대비되게 분당 선거과정에서 “중산층 역할” 론을 제기하면서 중산층/중도층을 지지기반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당 지지율의 이념별 지지 분포를 보면 지난 해 10월 전당대회 이후 당의 정책과 노선이 급격하게 좌향좌 행보를 걸으면서 정작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인 중도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하락 현상이 나타나 중도실용노선을 강조해온 한나라당과 지지율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었다(EAI 여론브리핑 96호).
- 그러나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보수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3월 조사 19.2%, 4월 조사 20.4%로 큰 변화가 없었다. 선거승리를 계기로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눈에 띈다. 진보층에선 3월 조사에서 29.7%,



4월 조사에서 39.4%로 9.7%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3월 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21.9%로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에 근접한 수준이었지만 이번 4월 조사에서는 무려 16.1%포인트가 상승한 38.0%로 진보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선거에서 일관되게 중산층 역할론을 강조한 결과로 추론해볼 수 있다.²⁾

- 앞으로 중산층 역할론과 중도성향의 정체성이 강한 손학규 대표체제가 지금까지 당이 걸어온 좌향좌 행보를 중도노선과 융합시킬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민주당 지지율 상승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전월 대비 이념성향별 민주당 지지율 변화(%)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2) 분당선거의 의미와 4.27 재보궐 선거에서 분당선거에서의 손학규 대표의 승리를 “중산층 역할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필자의 <주간동아> 기고문을 참조할 것. 정한울 “4·27 ‘분당의 반란’ … 중산층 분노 폭발” <주간동아> 제785호 (2011.5. 2).

【차기 대선 구도와 대선주자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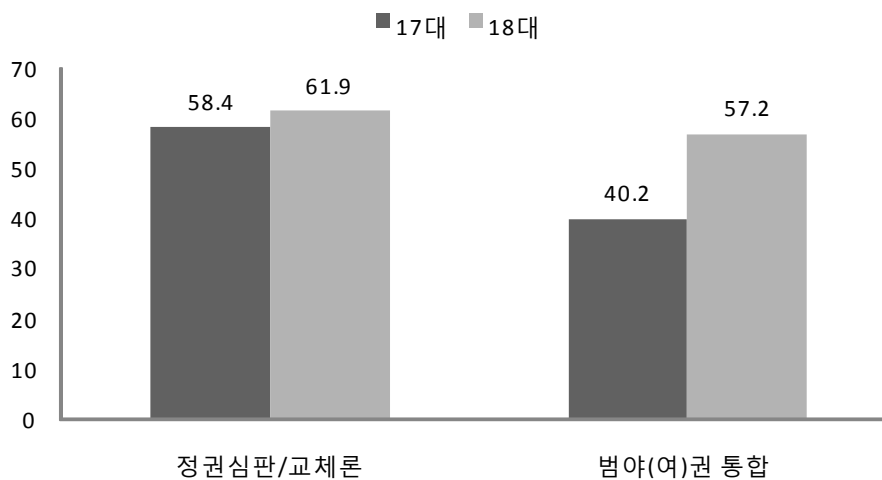
(1) 차기대선 구도 : 17대 대선 구도와 18대 대선 구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정권교체 심리 팽배, “심판론/정권교체론” 공감도 17대 대선 58.4%, 18대 대선 61.9%

차이점 : 반한나라당 연대 공감도 급증 40.2%→ 57.2%, 17대 야 후보 강세, 18대 박근혜 강세

- 4.27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18대 대선 선거 구도를 좌우하는 “정권교체론”, “범야권 통합론”에 대한 여론을 17대 대선 시기의 여론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8월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제2차 대선패널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8.4%가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32.1%만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질문을 바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61.9%가 공감한다고 답해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요구를 웃돌고 있다.
- 반면 지난 17대 대선 당시에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범여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0.2%만이 공감한다고 밝혀 큰 기대가 없었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범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무려 57.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17대 대선 당시에는 당시 범 여권이 분당과 연대를 반복한 반면, 현재는 진보정당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2010년 지방선거 이래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선거 국면에서 실제 단일후보 선정에 성공하면서 범야권의 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그림 6] 17대 대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론 및 야권 통합론 공감도(%)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2011.4), EAI·중앙일보·SBS·한국리서치 대선패널2차 조사(2007.8)

(2) 차기 대선 단순 지지도 : 박 35.8% > 손 11.5% > 유 7.1% > 오 5.1%

- 당선가능성 : 박 48.9% → 48.5%, 손 4.1% → 12.5%, 오세훈 7.5% → 5.3%

- 정권교체론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야권통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18대선과 지난 17대 대선구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야권 후보의 경쟁력에서 나타난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야권의 강력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라는 대안을 통해 표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에서 역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고조되고 야권연대에 대한 기대와 공감이크지만, 정작 이번 재보궐 선거 승리에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전 대표의 압도적 우세가 유지되고 있다.

[표 1]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및 당선가능성 (%)

	순위	2011년				2010년		
		4월 지지율 (당선가능성)	3월	2월	1월****	12월	11월	10월
박근혜	1	35.8 (48.5)	36.9	36.0	31.9	28.5	30.8	34.3
손학규	2	11.5 (12.5)	3.1	3.6	6.8	4.9	5.8	5.7
유시민	3	7.1 (1.9)	10.6	7.2	9.7	8.7	8.5	6.9
오세훈	4	5.1 (5.3)	8.1	5.7	6.7	6.7	4.1	4.3
정몽준	5	3.7 (2.1)	3.0	3.0	4.1	3.3	2.7	2.9
한명숙	6	3.6 (1.3)	6.4	4.4	6.6	4.5	3.8	6.6
김문수	7	3.2 (1.1)	5.2	4.5	3.9	5.8	4.4	4.7
이회창	7	3.2 (1.2)	3.8	2.9	3.6	3.8	5.3	3.4
김두관	9	1.8 (0.5)	2.0	1.1	1.5			
정동영	10	1.7 (0.8)	2.6	2.2	2.8	2.9	3.1	3.7
이재오	11	0.4 (0.4)	0.3	0.3	1.4	0.0	0.8	1.0
정세균	12	0.1 (0.1)	0.4	0.7	0.5	0.3	0.1	0.3
다른후보	13	1.6 (1.3)	0.7	2.1	1.3	2.7	2.1	2.4
모름/없음	-	21.4 (23.0)	17.1	26.5	19.2	28.0	28.5	23.8

주: 4월 괄호안의 수치는 당선 가능성

* 이재오 특임장관은 2010년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 이번 조사에서 여러 후보 중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를 묻는 단순 지지도 문항에서 박 전 대표는 35.8%로 여전히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조사에서의 36.9%에 비해서 1.1% 포인트 하락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다. 4.2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국민여론 차원에서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달 48.9%에서 이번달 48.5%로 큰 변화 없이 박전대표의 차기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가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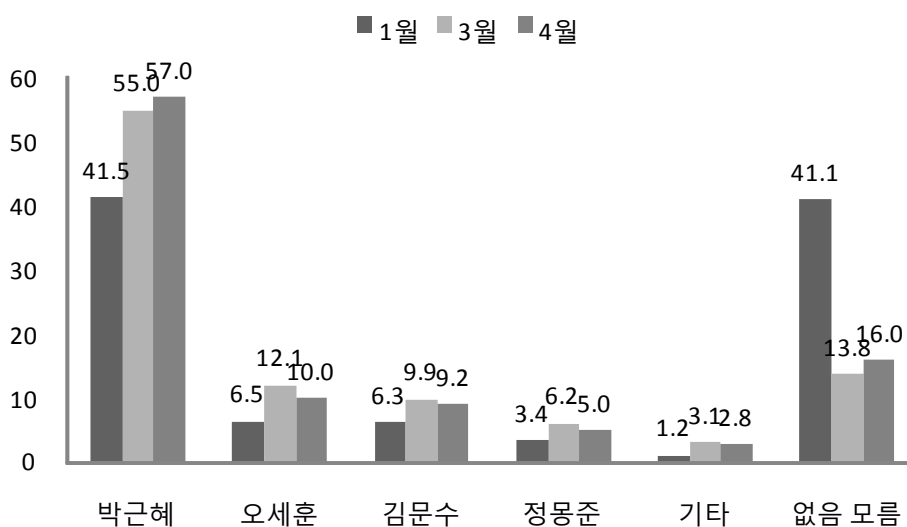
- 반면 손학규 대표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4.27 재보궐 선거 참여 결정 이전에 실시한 지난달 조사에서 3.6% 지지를 얻는 데 그쳤던 손학규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는 11.5%를 기록하여 지난 해 당대표 직후 다시 두자리 수대로 진입하며 2위에 올랐다. 당선가능성도 지난 달 조사 4.1%에서 이번 달 조사에서는 12.5%로 뛰어올랐다.
- 반면 지난달 조사에서 10.6%를 기록했던 유시민 전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7.1%로 내려 앉았고, 오세훈 시장 5.1%, 정몽준 전대표 3.7%, 한명숙 전총리 3.6%, 김문수 지사 및 이회창 대표가 각각 3.2%로 나타났다. 그 뒤를 김두관 경남지사(1.8%), 정동영 전장관(1.7%), 이재오 장관(0.4%), 정세균 전 대표(0.1%) 순이었다.

(3) 여야 진영간 후보 적합도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7.0% > 오세훈 10.0% > 김문수 9.2% > 정몽준 5.0%

- 한나라당 후보들만 뽑아 한나라당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박근혜 전대표가 57.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오세훈 시장이 10.0%, 김문수 지사가 9.2%, 정몽준 전대표가 5.0%, 홍준표 최고위원 1.2%, 이재오 장관 0.6% 순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격차는 더욱 커져 박 전대표를 뽑은 응답이 63.5%, 오세훈 시장을 뽑은 응답은 13.4%, 김문수 지사 8.2%, 정몽준 전대표 6.4%, 이재오 장관 1.0% 순으로 나타났다. 변화추이를 보면 3월 들어오면서 무응답 층이 크게 줄면서 박근혜 전대표로 지지가 쏠리는 양상이다.

[그림 7]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표 2] 계층별 한나라당 대선후보 적합도 선호 (%)

한나라당 대선후보	사례수 (명)	김문수	박근혜	오세훈	이재오	정몽준	홍준표	다른 후보	없음 모름
전체	(800)	9.2	57.0	10.0	0.6	5.0	1.2	1.0	16.0
세대									
20대	(153)	6.3	59.1	14.4	0.0	5.8	0.5	1.3	12.5
30대	(169)	12.0	53.5	9.2	0.0	4.1	2.2	1.3	17.6
40대	(179)	10.1	55.2	9.8	0.6	3.8	1.1	0.4	19.1
50대	(143)	11.7	57.9	7.7	1.4	5.1	1.4	0.6	14.1
60대 이상	(157)	5.8	60.1	9.0	1.3	6.3	0.4	1.2	15.9
거 주 지									
서울	(168)	9.3	54.2	13.9	1.2	3.5	0.7	1.8	15.4
인천/경기	(225)	14.9	49.5	9.1	0.9	5.6	1.0	1.9	17.2
대전/충청	(80)	3.8	71.9	4.4	0.0	4.1	0.7	0.0	15.1
광주/호남	(82)	10.8	42.9	12.7	0.0	7.5	2.4	0.8	23.0
대구/경북	(83)	5.9	72.6	12.8	0.0	2.2	1.6	0.0	4.8
부산/경남	(127)	5.6	64.4	8.0	0.8	4.7	0.0	0.0	16.4
강원/제주	(33)	2.1	53.7	4.7	0.0	11.3	6.0	0.0	22.1
이념성향									
진보	(180)	15.3	47.1	7.6	1.1	5.7	2.8	1.8	18.5
중도	(356)	7.3	62.8	10.1	0.0	4.6	0.6	0.8	13.8
보수	(213)	9.2	57.0	12.9	1.4	5.3	0.4	0.7	13.0
정당지지									
한나라당	(300)	8.2	63.5	13.4	1.0	6.4	0.0	0.3	7.3
민주당	(257)	9.9	54.9	9.3	0.4	5.0	2.4	2.1	16.1
군소정당	(103)	14.5	51.0	9.8	1.0	2.8	2.5	0.6	17.9
무당파	(140)	6.2	51.6	4.5	0.0	3.5	0.4	0.7	33.2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전화(RDD방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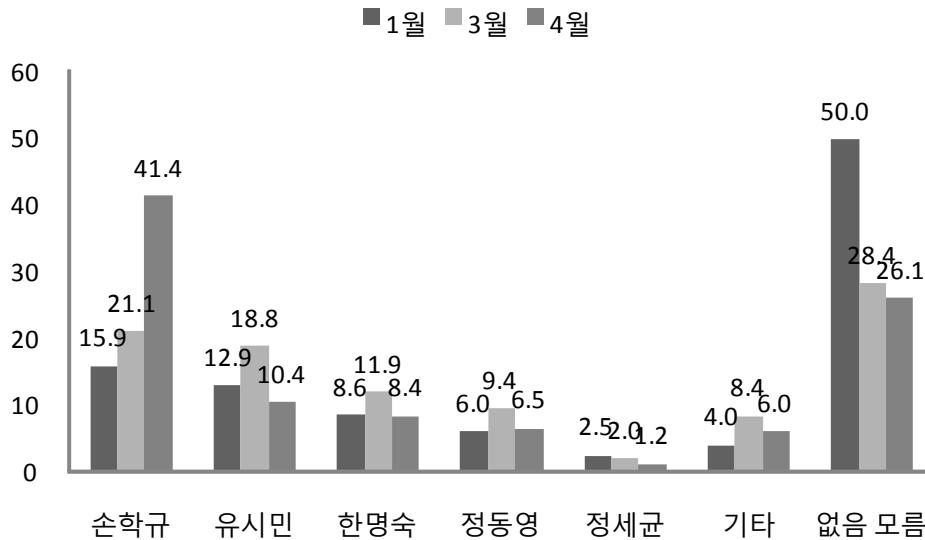
- 야권단일 후보 적합도 : 손학규 41.4% > 유시민 10.4% > 한명숙 8.4% 순

- 한편 야권 후보들만 뽑아 범민주단일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분당선거에서 승리한 손학규 대표가 41.4%로 압도적인 우세로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손대표에 오차범위로 추격하던 유시민 대표는 10.4%로 낮아졌고, 한명숙 전총리 8.4%, 정동영 최고위원 6.5%, 김두관 지사 1.4%, 노회찬 전의원 1.4%, 정세균 전대표 1.2%, 이정희 대표 0.3% 순이었다.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1%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야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역시 1-3월 간 변화 추이를 보면 손대표와 유대표를 약간 앞서는 상황이었지만 4.27 재보궐 선거에서 손대표의 선전과 유시민 전대표가 민 이봉수 후보의 패배로 손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서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민주당 지지층에서 격차 커, 호남은 손 40.5%, 유 8.1%

- 전 계층에서 고르게 양 후보가 격차가 유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호남지역에서도 손대표를 뽑은 응답이 40.5%, 유대표를 뽑은 응답이 8.1%로 손대표로 무게중심이 확고하게 옮겨진 모습이다. 세대별/직종별 분석에서는 20대, 학생층에서는 여전히 양 후보가 비슷한 수준으로서 유시민 대표에 대한 지지가 여전했고 유시민 대표의 저력이 주로 젊은 학생층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민주당 지지층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커져서 손 대표 48.0%, 유시민 대표 11.2%, 한명숙 전총리 9.8%, 정동영 최고위원 8.9%, 순으로 나타났고 다른 후보들은 2%에 못 미치는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군소정당 지지층과 무당파 층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손대표와 유시민 대표와의 격차는 줄어든다. 군소정당 지지층에서는 손학규 대표를 단일후보로 뽑은 응답이 38.7%, 유대표를 뽑은 응답이 20.1%, 한명숙 전 총리 14.9%, 정동영 최고위원 5.4%, 김두관 지사 4.2%, 노회찬 전대표 4.0% 순으로 나타났다. 군소정당, 특히 진보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유대표를 뽑은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높았고 격차도 줄었지만 손대표와의 격차는 적지는 않았다. 한편 무당파 층에서도 손대표 33.1%, 유대표 10.7%, 정동영



최고위원 4.7%, 한명숙 전총리 4.0%, 미정인 응답자가 40.3%로 나타났다.

[표 3] 계층별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선호 (%)

야권단일후보 대선후보	사례수 (명)	손학규	유시민	정동영	정세균	한명숙	없음 모름
전체	(800)	41.4	10.4	6.5	1.2	8.4	26.1
세대							
20대	(153)	23.0	23.6	8.7	1.4	11.2	27.7
30대	(169)	43.3	12.4	9.1	0.6	11.7	18.8
40대	(179)	47.2	6.5	6.5	0.0	8.4	22.1
50대	(143)	56.2	5.0	6.5	0.0	7.7	19.2
60대 이상	(157)	37.2	4.9	1.9	4.3	3.0	43.2
거 주 지							
서울	(168)	36.2	9.8	7.4	0.6	7.5	29.0
인천/경기	(225)	46.1	10.9	5.5	0.9	8.0	25.0
대전/충청	(80)	40.4	11.6	7.1	0.7	8.4	27.8
광주/호남	(82)	40.5	8.1	12.1	2.4	12.2	20.5
대구/경북	(83)	43.7	12.2	5.9	2.6	5.9	25.9
부산/경남	(127)	38.6	9.5	5.4	0.8	8.3	26.7
강원/제주	(33)	45.5	11.6	0.0	3.4	13.5	26.0
이념성향							
진보	(180)	46.5	11.8	5.8	0.3	5.9	20.4
중도	(356)	41.3	8.6	8.0	2.1	8.7	27.7
보수	(213)	42.8	14.2	5.5	0.5	9.2	21.2
정당지지							
한나라당	(300)	40.5	6.3	5.8	1.1	7.2	33.5
민주당	(257)	48.0	11.2	8.9	1.8	9.8	16.6
군소정당	(103)	38.7	20.1	5.4	1.0	14.9	8.7
무당파	(140)	33.1	10.7	4.7	0.7	4.0	40.3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4) 박근혜 대 손학규 양자 가상대결 : 박근혜 52.3% 대 손학규 33.1%

중도층에서 박근혜 우세, 박 51.7% 손 33.8%.

- 한편 박근혜 전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가상 맞대결 시에는 박근혜 전대표가 52.3%, 손학규 대표가 33.1%로 나타났다.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4.6%였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전 계층에서 박근혜 대표의 우위 현상이 나타나는 데 호남 및 민주당 지지층, 이념적 진보층에서 손대표가 유리했다. 주목할 점은 여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20대에서 박전대표 지지율(54.2%)과 손학규 단일후보의 지지율(34.7%) 격차가 상당히 컸다.
- 맞대결 시에는 일반 단순 지지도에 비해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 상승폭보다 손학규 대표의



상승폭이 커짐으로써 손대표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전대표의 경우 야권 지지층 즉,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도 손대표에 뒤지고는 있지만 상당한 득표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중도층에서도 박 전대표 51.7%, 손대표 33.8%로 나타나 박전대표의 우위가 나타났다. 이들 계층에서 박전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것이 향후 손대표 진영의 최대 과제로 나서고 있다.

[표 4] 계층별 대선 1 : 1 구도에서의 후보 선호 (%)

야권단일후보 대선후보	사례수 (명)	박근혜	손학규	없음 모름
전체	(800)	52.3	33.1	14.6
세대				
20대	(153)	54.2	34.7	11.1
30대	(169)	45.7	38.0	16.3
40대	(179)	48.6	38.0	13.4
50대	(143)	53.0	30.5	16.5
60대 이상	(157)	61.3	22.8	15.9
거 주 지				
서울	(168)	53.7	30.9	15.4
인천/경기	(225)	46.6	35.1	18.3
대전/충청	(80)	51.1	26.9	22.0
광주/호남	(82)	21.7	66.4	12.0
대구/경북	(83)	73.7	18.7	7.6
부산/경남	(127)	66.0	22.8	11.2
강원/제주	(33)	57.6	37.7	4.7
이념성향				
진보	(180)	36.1	49.6	14.3
중도	(356)	51.7	33.8	14.5
보수	(213)	67.0	21.9	11.1
정당지지				
한나라당	(300)	82.9	8.4	8.7
민주당	(257)	31.2	58.0	10.8
군소정당	(103)	29.8	60.8	9.4
무당파	(140)	42.1	19.9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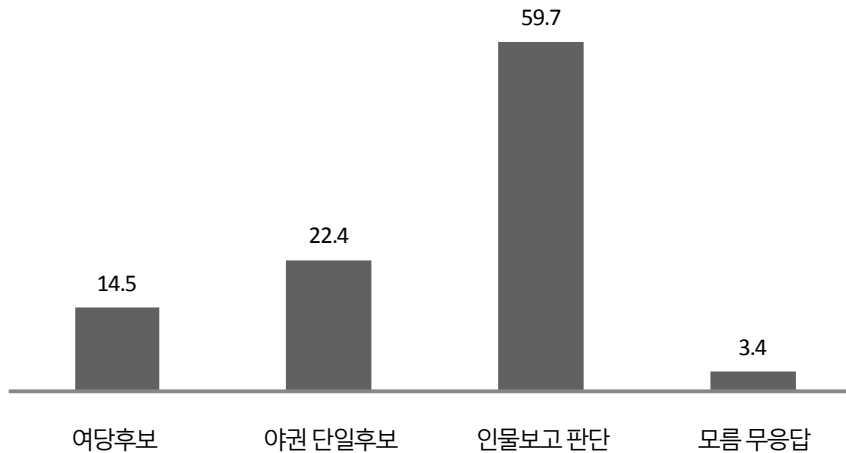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논점】 야권단일후보 공감도 큰 데 박 전대표 우위가 유지되는 이유는?

- 대선은 인물요인 크고, 회고투표보다 전망투표 경향 강해
 - 정권심판/야권통합 지지층에서조차 “인물보고 결정하겠다” 55.4%
-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범야권의 통합에 대한 공감이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후보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독주 체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투표(economic voting theory)에 대한 최근 나오고 있는 이론 논의가 심판론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차기대권경쟁에서 박전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가 설명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학계에서는 대선에서 현 정부의 실적(performance)에 대한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voting)에 의해 투표후보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미래 시점의 각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정책과 정책추진 역량에 대한 전망적 평가(prospective voting)의 차원에서 투표후보를 결정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임기 중 실시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이 주로 현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 성과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기초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강원택 2010), 대선의 경우 대통령 선거의 경우 IMF 경제위기 실시된 15대 대선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망적 투표이론의 설명력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박경산 1992; 이현우 1998; Jhee and Shin 2007). 그러나 지난 2007년 대선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한국에서도 회고적 투표의 경향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서 집권당 후보가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이러한 논리가 맞다면 현재 집권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팽배하면서도 투표행태에서 여당의 후보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양 입장을 대립적으로만 보기 보다는 향후 경제 개선의 책임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는 조건 하에서 즉 전망투표의 대안이 분명할수록 한국 선거에서도 회고적 평가에 기초한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anders and Carey 2002; 정한울·권혁용 2009).
 - 회고적 심판투표의 전제가 미래 정책역량에 대한 평가와 결부된다는 것은 결국 심판론이 미래의 대안세력에 대한 기대와 연결될 때 실제 투표행위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차기 대권주자 중 주요 아젠다별로 누가 가장 잘 국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는 지 물어본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미래 경제성장이나 양극화 해소, 삶의 질 개선 등의 국가 아젠다에 대해 야당 후보 보다는 박근혜 후보가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 보는 여론이 강했다. 현 정부 국정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야권 주자가 아니라 박근혜 전대표를 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 정부 심판론과 문책의 여론이 강하지만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가 대안으로서 야당을 선택하기 보다는 여당후보(박근혜)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EAI 여론브리핑 제93호, 20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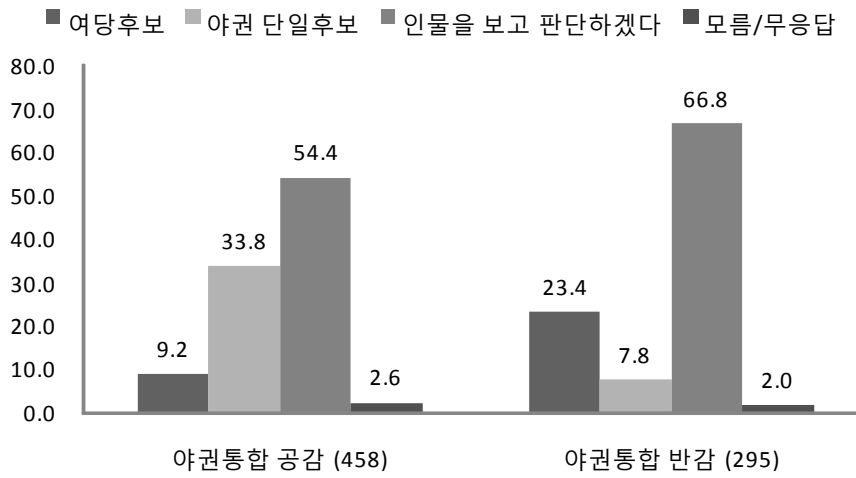
[그림 9] 야권단일 후보시 투표 후보 선호(%)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전전화(RDD방식 조사)

- 뿐만 아니라 한국 선거에서는 정당요인이나 구조적인 요인 못지 않게 인물요인이 전통적으로 강하게 작용해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정부 심판론과 반한나라당 야권 통합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이것이 바로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어본 결과 59.7%의 다수 여론은 인물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4.5%, 야권단일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 심지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범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층(458명)에서조차 현재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은 33.8%에 불과하다. 인물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54.4%로 인물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다수다. 이들 중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입장은 9.2%에 불과했다. 반대로 야권통합에 반감을 가진 층에서는 더욱 인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 강했다. 66.8%에 달했다. 이들 중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은 23.4%,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은 7.8%였다.
- 이는 야권단일후보의 선출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과 범민주세력의 연합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정부 여론의 기반이 강한 김해읍에서 야권단일후보를 선출했음에도 결국 후보역량이 뒷받침 못했을 때 패배한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인물경쟁력과 비전/정책의 컨텐츠 없이 후보단일화에만 올인할 경우 그 파괴력이 반감될 수 있으며 결국 후보단일화는 야권의 선거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을 필지언정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10] 정권교체 위한 야권통합 공감여부별 투표 후보(%)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조사.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전화(RDD방식 조사)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수적이다. 매월 말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에 기반을 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4월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1년 4월 30일 (1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표본추출	지역·성·연령에 맞게 층화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pm 3.5\%$
조사방법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걸기방식)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획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www.eai.or.kr)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응답율	11.9%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근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